

SPORTS

2025년 4월 9일 수요일

한국 U-17 축구, 아시안컵 2차전서
아프간에 6-0 승...8강 진출 청신호

23년 만에 아시아축구연맹(AFC) U-17 아시안컵 정상 탈환에 나선 한국 남자 17세 이하(U-17) 축구대표팀이 '약체' 아프가니스탄에 '6골 폭풍'을 몰아치며 8강 진출의 파란불을 켰다.

백기태 감독이 이끄는 한국 U-17 대표팀은 8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킹 압둘라 스포츠시티 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AFC U-17 아시안컵 조별리그 C조 2차전에서 김은성(대동세무고)의 멀티골 등을 합쳐 6-0로 대승했다.

지난 5일 인도네시아와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충격의 0-1 패배를 당했던 한국은 이날 승리로 1승 1패(승점 3·골 득실+5)를 기록, 인도네시아(2승·승점 6)에 1-4로 패한 예멘(1승 1패·승점 3·골 득실-1)과 승점이 같아졌지만, 골 득실에서 앞서 조 2위에 랭크됐다. 2연패를 당한 아프가니스탄(승점 0)은 최하위다.

오는 11일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 예선을 겸하는 이번 대회에서 4개 팀씩 4개 조로 조별리그를 치러 각 조 1, 2위를 차지한 8개 팀이 8강에 진출한다.

특히 FIFA U-17 월드컵 출전국 수가 48개국으로 크게 늘면서 아시아에 티켓이 9장(개최국 카타르 포함)이나 배정돼 이번 대회 8강 진출 팀은 모두 월드컵 본선행 티켓을 얻는다.

이에 따라 한국은 오는 11일 예정된 예선과 조별리그 3차전 최종전에서 비기거나 해도 골 득실에서 앞서 조 2위를 차지하게 돼 8강에 오르는 유리한 위치에 올랐다.

다만 승점이 같아지면 승자승 원칙을 먼저 따지는 규정에 따라 한국은 3차전 결과에 따라 인도네시아와 승점이 같아도 조 1위는 차지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한국과 예선을 잇따라 꺾은 인도네시아는 조 1위로 8강 진출을 확정, 월드컵 본선행 티켓을 품었다.

연합뉴스



광주FC, 안방서 시즌 첫 연승 쏜다



오늘 오후 7시 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서 대구전
2승 4무 1패 리그 6위... 선수단 부상 관리 관건

프로축구 광주FC가 올 시즌 K리그1 첫 연승에 도전한다.

광주FC는 9일 오후 7시 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대구FC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1 2025 10라운드 홈 경기를 치른다.

앞서 광주는 지난 6일 제주SK FC와의 홈 경기에서 1-0으로 승리하며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다. 김경민 골키퍼를 필두로 4명의 수비수가 버티는 최후방의 집중력은 경기 내내 유지됐고, 공격진에선 헤이스가 3경기 연속 골 맛을 보며 홈 팬들에게 승점 3점을 선물했다.

특히 이날 승리는 지난 대전전에서 벤치 쪽을 향해 물병을 찧다가 레드카드를 받아 퇴장당했던 이정호 감독의 공백 속에서도 이뤄낸 결과라 더 의미가 깊다. 그 결과 광주는 현재 2승 4무 1패 승점 10을 기록, 파이널A권인 리그 6위에 올라섰다.

이정호 감독은 이번 대구전에서도 출장할 수 없다. 이에 선수단은 철저한 대비로 상승세를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일정 여파로 10라운드 대구전을 앞당겨 치르기에 휴식 시간이 짧았지만, 제주전을 통해 결과를 만들어냈기에

흐름이 좋다.

광주와 대구 모두 주말 경기를 치렀고, 이번 경기를 치른 후엔 또다시 주말 경기에서 나서야 한다. 타이트한 일정을 감안할 때 양 팀의 선발 라인업은 직전 경기와 상당 부분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광주가 이번 경기에서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다. 광주는 올 시즌 초반부터 ACLE와 리그 일정을 병행하며 고정된 라인업을 만들지 않았다. 매 경기 로테이션을 반복했기에 공수 양면에서 선발로 나서는 선수와 교체로 투입되는 선수의 격차가 적다. 어떤 선수도 경기에서 나오지 않는 선수의 격차가 적다. 어떤 선수도 경기에서 나오지 않는 선수의 격차가 적다.

반면 상대 대구(승점 7·리그 9위)는 4연패를 기록하며 흔들리고 있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 코칭스태프와 선수단이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

광주는 4월 일정이 가장 바쁜 팀이다. 지난 6일 제주SK전을 치른 뒤 사흘 만에 이번 대구전을 앞두고 소화한다. 13일에는 춘천에서 강원FC를 치른다.

이어 19일에는 FC서울전을 치르고 20일 곧바로 ACLE를 치르기 위한 사우디아라비아행 비행기에 오른다. 2주간 5경기를 치르는 만큼 선수단 체력 관리에 대한 우려도 높다. 부상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좋은 흐름을 유지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가 주어졌다.

진중환 일정 속 광주가 기회를 잡고 연승가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광주는 이번 대구전 당일 오후 6시 20분~7시 10분까지 약 50분간 경기장 옆 롯데아웃렛 외부 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광장에서 이정호 감독 팬 사인회를 진행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다움스포츠클럽 문하람, 태산배 스쿼시대회 '정상'

여중부 결승서 이해인 3-2 제압
동일미래고 박솔민, 여고부 '금'

광주다움스포츠클럽 문하람이 '제5회 태산배 전국스쿼시선수권대회' 정상에 올랐다.

문하람은 지난 3~6일 대한스쿼시연맹 주최로 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이번 대회 여자 15세이하 개인전 결승에서 이해인(연성중)을 세트스코어 3-2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 16강전에서 부전승을 거둔 문하람은 8강에서 이시우(경남유스스쿼시클럽)를 3-0(11-1 11-3 11-3)으로, 준결승에서 김도은(세종중)을 3-0(11-7 11-4 11-9)으로 완파한 뒤 결승전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는 이해인에게 첫 세트를 4-11로 내줬다. 하지만 2세트에서 12-10, 3세트에서 11-7로 승리하며 역전에 성공했다. 문하람은 4세트(4-11)를 내줬으나 세트 12-10 신승을 거두며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문하람은 대한스쿼시연맹 청소년대표 선수로 활동 중인 한국스쿼시 유망주다.

광주다움스포츠클럽의 지원을 받고 있는 그



지난 3~6일 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제5회 태산배 전국스쿼시선수권대회' 여자 15세이하 개인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광주다움스포츠클럽 문하람(왼쪽 세 번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다움스포츠클럽

는 이번 대회에서 자신의 라이벌인 이해인을 꺾기 위해 시체육회관 스쿼시장에서 매일 체력과 기술 훈련에 몰두, 대회 우승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광주 박솔민(동일미래고)은 같은 대회 여자 18세이하부에서 금메달을 들어 올렸다.

박솔민은 16강에서 김유빈(나주스포츠클럽)에 3-0(11-9 11-1 11-4), 8강서 박예원(장호원고)에 3-0(11-4 11-2 11-4), 4강서 정단아(경상남도스쿼시연맹)에 3-0(11-6 11-0 11-2) 완승을 거두며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서는 서예은(산본고)을 만나 1세트 11-8, 2세트 11-3 승을 거두며 기선을 제압했다. 이후 3세트 7-11로 내줬지만 4세트에서 점전 끝 13-11 승리를 거두면서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

오순근 광주다움스포츠클럽 회장은 "앞으로도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관리하겠다"며 "이들이 경기에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더 나은 훈련환경 또한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이정호 광주FC 감독, 오늘 대구전서 팬 사인회

롯데아웃렛 외부 광장서... "팬들이 보여준 사랑 진심으로 감사"

프로축구 광주FC 이정호 감독이 대구전 홈경기서 팬들과 특별한 만남에 나선다.

8일 광주FC에 따르면 9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1 10R 대구와의 홈경기서 이정호 감독의 팬 사인회를 진행한다.

이정호 감독의 팬 사인회는 오후 6시 20분~7시 10분까지 약 50분간 경기장 옆 롯데아웃렛 외부 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이정호 감독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앞서 대전전 퇴장으로 2경기 동안 벤치에 앉을 수 없게 되

자 이를 팬과의 스킨십 시간을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정호 감독은 지난 6일

진행된 제주전에서도 경기 시작 전 직접 서포터즈석을 찾아 팬들과 인사를 나누며 고마움을 전하는 등 팬들에 대한 애정을 보여줬다.

이번 팬 사인회는 팬 서비스의 연장으로 팬들에게 고마움을 직접 전하기 위해 준비됐다.

이정호 감독은 "선수들을 위해 열렬히 응원해 주시는 팬들에게 어떻게 고마움을 전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경기장에 찾아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



KIA, 11~13일 승리기원 릴레이 시구 이벤트

크리에이터 랄랄·트로트 가수 박지현 등 나서

KIA타이어즈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SSG와의 홈경기 승리기원 릴레이 시구 이벤트를 개최한다.

11일에는 크리에이터 랄랄이 시구자로 나선다. 부녀회장 컨셉의 부캐인 '이명화'를 연기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랄랄은 이날 이명화 분장을 하고 마운드에 설 예정이다.

12일은 광주 대인시장에서 1000원 밥집을 운영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해 온 김윤경씨가 시구를 한다. 김윤경씨는 어머니가 운영하던 천원 밥집을 물려받아 운영하며 2대째 선정을 이어오고 있다.

13일은 트로트 가수 박지현이 시구를 맡는다. 박지현은 지난 2022년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해 최종 2위를 기록하며 이름을 알렸다. 전남 목포에서 태어나 광주에서 대학 생활을 한 박지현



크리에이터 랄랄



가수 박지현

은 "챔피언스 필드에 직판도 갔었는데 시구를 하게 되다니 감회가 새롭고 설렌다. 선수들이 좋은 기운을 받아 경기에서 꼭 이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SSG와의 3연전은 '레트로 데이'로 치러지며, 레트로 베스트 드레서 선정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

광주 비오신코리아(주), 실업배구대회 '준우승'

지역 내 유일 실업 배구팀...전국체전 경기력 기대

광주시체육회 우수선수들이 활약하고 있는 비오신코리아(주) 배구팀이 전국실업대회에서 준우승의 쾌거를 거뒀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4일부터 강원도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25 한국실업배구연맹전 홍천대회'에서 비오신코리아(주) 배구팀이 값진 준우승을 차지했다고 8일 밝혔다.

비오신코리아는 대전시체육회와의 첫 경기에서

5세트 점전 끝에 3-2로 이겨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는 강호 엔오엔을 만나 0-3으로 패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비오신코리아는 2020년 9월에 창단해 2021년부터 4년 연속 광주 대표로 전국체전에 참가해 온 지역 내 유일한 실업 배구팀이다. 2021년과 2022년 신협중앙회장배 한국실업배구연맹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팀이다. 시

체육회는 비오신코리아에 체육회 우수선수들이 포함돼 있어 앞으로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의 경기력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전갑수 시체육회장은 "지역 유일의 실업 배구팀인 비오신코리아의 준우승과 선수들의 하나 된 경기력에 박수를 보낸다"며 "전국대회의 상승세를 이어나가 오는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오신코리아는 암의 치료에서부터 회복기에 이르기까지 암치료 재활 전문 기업으로, 암환자 맞춤형 셀밸런스(생수) 생산, 비오메드 요양병원 개원 등 암 환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데 앞장서고 있다.

송하중 기자 hajong2@